

제3의 선수 '서포터즈'...폭염보다 뜨거운 응원 열기

서울 주부·붉은 악마 등 전국 각지서 달려와 응원

"외국인들에게 광주 알리고 아이들에 애국심 고취"

광주 U대회가 개막 4일째를 맞으면서 각 경기장마다 응원열기가 뜨겁다. 각 국의 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멀리 광주까지 응원을 하러 온 팬들이 곳곳에서 각 국의 선수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情)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도 경기 내내 각 국의 국기와 환호성으로 응원을 펼쳐 외국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비인기 종목'을 응원하러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가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적잖다. 5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배

구 경기장에는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 서포터즈들이 출동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미국과 핀란드 경기에서는 광주교대 생활동 화정4동, 백운 2동 주민들이 핀란드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해 핀란드 선수들 서포터즈 응원단 앞에서 서포터즈에게 감사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일 호남대 축구장에서 열린 한국과 대만의 여자축구 A조 경기에 느닷없는 '붉은 악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장 분위기를 후끈 달군 '붉은 악마 3인방'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칭 한국 여자축구 응원단이다. 안진용(34)씨와

강석경·양미르씨가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여자축구를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다. 안 씨는 전주에서 이날 자신의 승용차에 북을 싣고 직업 운전해 광주를 찾았고, 강씨와 양씨는 KTX를 타고 호남대 축구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이날 경기 내내 응원가를 부르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면서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다.

안씨는 "여자축구가 남자축구에 비해 파워풀 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직접 보시면 다이내믹한 모습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뛰어나다. 모두 직장인이어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지만 1주일에 한번은 여자축구 경기를 보려고 한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가장 먼저 여자축구 대타입 경기 일정을 살펴봤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지켜보는 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광

주를 찾게 됐다.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는 합기도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광주시 북구 각화동 은누리 체육관 소속의 청소년 45명도 서포터즈로 자리를 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이들을 인솔한 최석일 관장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외국인에게 우리 광주를 알리고, 아이들이 애국심과 광주에 대한 자부심을 기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체육관 회원들을 비롯해 이날 경기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서포터즈가 발걸음을 했다. 그늘막도 없는 관중석을 끝까지 지킨 서포터즈들은 대만 선수들의 허슬플레이가 나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 등 스포츠 축제에 함께 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파이팅 코리아~" 지난 5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미국과 핀란드 여자 농구 경기에서 핀란드 선수단들이 광주시민 서포터즈의 열띤 응원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개회식 호평 만족 말고 사소한 문제도 최선을"



윤장현 시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당부

"개회식 호평에 만족해선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U대회 개막 4일째인 6일 오전 7시 서기관급 이상 간부를 소집하고 월요 긴급회의를 열었다.

월요회의는 준국장급 이상 20명 안팎의 간부만 참석해 오전 8시에 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회의 시간이 빨라지고 참가 범위도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께 윤 시장 명의로 시 본청은 물론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U대회 조직위 관계자,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4급 이상 150명에게 회의를 알리는 문자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중국 연수 중 불의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철균 서기관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 윤 시장은 "개회식 등 대회 초반을 잘 치러냈다는 주변의 칭찬에 자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 시장의 이날 발언은 개회식 등 대회 초반부터 전 세계 선수단은 물론 정부와 국내외 언론, 시민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자칫 공짜자나 조직위 관계자들의 마음이 들떠 대회운영 등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윤 시장은 "개회식 성공 평가에 만족하면 대회를 그칠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한 뒤 "다만 청년축제가 금남로에서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선수촌과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또 "대회가 광주 이외도 전남·북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면서 "특히 태풍 북상이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과 대회 운영과정에서 지나치지 쉬운 사소한 문제도 적극 나서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팸투어 연일 매진...셔틀버스 증편 시급

"쇼핑 셔틀 신설해 선수들 이동 돕고 지역경제 도움돼야"

광주 U대회 기간 전 세계 선수단을 위해 운영중인 '팸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로 연일 매진되면서 버스 증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팸투어는 광주·전남의 뛰어난 경관과 문화 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선수촌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선수촌과 광주 도심 변화가, 주요 쇼핑시설, 재래시장 등을 오가는 이른바 '쇼핑 셔틀버스'를 신설해 선수단의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 현재 선수단 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34개국 632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 3일 개회식 후 매일 45인승 버스(6대)로 12회씩 운영되는 팸투어 프로그램이 전날 매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일 팸투어에 나서려 했던 선수들이 선수촌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팸투어

버스 증편에 대해서는 버스 운영 예산과 해설사, 통역사 등 인력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세계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U대회의 규모를 감안하면 하루 최대 450명으로 한정된 팸투어 프로그램(예산 4750만원)으로는 광주·전남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선수촌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도 영성해 선수들이 광주 도심 나들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봉사자 등 U대회 관계자들은 선수촌과 충장로 등 도심 변화를 거쳐 양동·대인시장·각화동 농수산물 시장 등 재래시장을 비롯한 주요 쇼핑센터를 경

유하는 쇼핑 셔틀버스를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는 선수단의 불만이 이어지자, 부라부라 선수촌~문화전당 간 셔틀버스만 긴급 투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 세니아 판테레아(여·21)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어려워 펜싱 경기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근 아웃렛으로 한참을 걸어야 했다"며 "지원되는 교통편이 없어 동료 선수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지만, 성공(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팔 선수단 통역 자원봉사자 곽소연(여·20)씨는 "서울출신인 저도 광주의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는 데, 외국 선수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선수촌과 도심을 수시로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처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투데이 경매

농성공무원 주유소부지, 큰대로변 차량통행망, 커피전문점, 식당 차량관련사업체추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814㎡ 건물 903㎡
감정가 15억 8천
최저가 11억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운암동 아파트단지 우수상권 편의점, PC방, 카페 추천
지하1층~지상3층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 5천
최저가 5억 9천

청단병원 맞은편 정례식장건물 요양병원 오피스텔 추천
지상5층 주차장시설완비
대지 1706㎡ 건물 3040㎡
감정가 36억 7천
최저가 25억 7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